

#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6년 5월 22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불법소각 줄이고 농가부담 던다-11면 (2026.05.18.)	기술지원조정과	농촌여성 신문
○	감귤하우스, 신재생에너지 100%-3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일보
○	제주 감귤하우스 ‘재생에너지 농장’ 으로 거듭난다-10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매일
○	제주, RE100 감귤 생산모델 시범사업 추진-6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한라일보
○	주간농사정보-10면	기술지원조정과	제민일보
○	초당옥수수 수확 ‘눈치싸움’ -5면	-	제민일보

(농촌여성신문: 2026년 5월 18일)

○ 불법소각 줄이고 농가부담 덜다-11면

# 불법소각 줄이고 농가부담 덜다

## 제주농업기술원,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감귤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예방하고, 농작업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제주농업기술원은 지난 3~4월까지 '찾아가는 파쇄작업단' 12개조 36명을 운영하며 86.7ha 면적의 현장 지원에 나섰다.

농업기술원은 지난 3~4월까지 '찾아가는 파쇄작업단' 12개조 36명을 운영하며 현

장 지원에 나섰다. 올해 파쇄 지원 면적은 당초 목

표인 80ha를 넘어 86.7ha에 달했다. 작업단은 사업 착수에 앞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추진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원은 농기계 사용이 어렵거나 일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과 독거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작업단은 파쇄작업은 물론 전정가지의 운반과 정리까지 지원해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피로 누적으로 인한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기여했다.

농업기술원은 이번 사업이 농업인의 작업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18.

| 김정자 기자 · kimjj | 농촌여성신문 11

(제주일보: 2026년 5월 22일)

○ 감귤하우스, 신재생에너지 100%-3면

# 감귤하우스, 신재생에너지 100%

## 서귀포농기센터,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 연계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기후변화 대응과 시설농업의 에너지 전환 기반 마련을 위해 ‘태양광·에너지 저장장치(ESS) 연계 재생에너지 100%(RE100) 감귤 생산모델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시설 재배지에서 고온기 환기시설과 자동화 장비 가동이 늘며 농가의 농업용 전력 사용량과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센터는 관내 시설 감귤농가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설비(6kW)와 ESS(20kW급)를 설치해 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직접 공급한다.

낮 동안 생산한 전력은 시설 운영에 즉시 사용하고, 남은 잉여전력은 ESS에 저장해 야간이나 정전 시 환풍기와 자동개폐기 등 주

요 장비를 안정적으로 가동하는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농업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력 사용량 변화와 에너지 절감, 탄소 배출 저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또 기존 농업용 전력 사용량과 태양광 발전량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해 제주형 RE100 감귤 생산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감귤시설 재배 현장에 재생에너지 활용체계를 적용하는 시범 단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현장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부담을 줄이고, 제주형 에너지 자립모델을 성공적으로 확산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5. 22.

제주일보 3



(제민일보: 2026년 5월 22일)

○ 주간농사정보-10면



### 주간농사정보

◆ 병해충 피해 확산 전 신속히 방제

□ 노지감귤

여름비료 시용: 5월 하순~6월 상순, 1년동안 주는 양의 질소 20%, 칼리 40%

병해충 방제: 꽃 70% 정도 낙화 시 잿빛곰팡이병 적용 약제 살포

□ 만감류

온도관리: 낮 최고 온도 28도 이하 유지

물관리: (종화기~1차 생리낙과) 5~7일 간격 20t/10a 관수

병해충 방제: 총채벌레·진딧물 등 예찰 후 조기 방제, 종화기 잿빛곰팡이병 적용약제 1~2회 살포하며 시설 내 환기 철저

□ 마늘

수확: 잎이 50~75%정도 말랐을 때 뽑아 3일 이상 말린 후 줄기절단

- 주아용은 구마늘보다 3~5일 늦게 수확, 주아가 달린 채 말린 후 줄기절단 및 주아 채취

종구저장: 바람이 잘 통하며 습하지 않고 햇볕이 닿지 않는 곳에 저장

□ 초당옥수수

물관리: 이삭수염 출현 후 토양이 마르지 않도록 수분 관리 철저

병해충 관리: 나방류 등 예찰 및 방제

- 나방류 유충 발생 확인되면 해뜨기 전에 적용약제를 줄기와 잎에 고루 살포

□ 맥류

병해충 방제: 출수~개화기에 붉은곰팡이병 적용 약제 3회 이내 살포

◆ 표준시비 실천에 동참하세요

□ 표준시비: 토양검정을 통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작물에 필요한 만큼만 비료를 사용하는 것

□ 표준시비 도입 실증사업 결과  
관행 대비 비료 사용량 △양배추 43% △브로콜리 36% △양파 26% △마늘 53.2% 줄여도 수확량·상품성 차이 없음  
5. 22.  
제민일보 10

(제민일보: 2026년 5월 22일)

○ 초당옥수수 수확 ‘눈치싸움’ -5면

# 초당옥수수 수확 ‘눈치싸움’

6월 출하 앞두고 관심 집중  
SNS·중고거래 문의 증가  
산지 직송 정보 공유 활발  
높은 당도에 여름 간식 인기

제주의 봄을 적시는 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초여름 기운이 서서히 짙어지면서 도민들의 관심을 한 여름 대표 간식인 ‘초당옥수수’로 향하고 있다.

5월 말부터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면서 제주 농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달콤한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른 더위 예보와 함께 초당옥수수를 찾는 소비자들의 움직임도 한층 빨라졌다. 정식 출하 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사전 예약

5.22. 이어지며 이른바 ‘초당옥수

수 눈치싸움’이 시작된 분위기다.

실제 한 초당옥수수 재배 농가는 최근 SNS에 “6월부터 첫 수확 예정”이라는 글을 올린 직후 수십건의 문의를 받았다.

중고거래 플랫폼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움직임이 분주하다. “제주 초당옥수수 농가 찾는다”, “대량 구매 가능한 곳 문의한다”, “농장 직거래나 위탁 판매, 택배 가능한 곳 추천 부탁드립니다”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며 산지 직송 정보를 공유하려는 소비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초당옥수수가 매년 큰 인기를 끄는 이유는 특유의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 때문이다. 일반 찹옥수수와 달리 삶거나 찌지 않아도 생으로 먹을 수 있어 간편한 여름 간식으로 꼽힌다. 한편 제주 지역 초당옥수수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돼 6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조병관 기자